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채우는 나눔을 향한 아흔아홉 걸음



**“한** 걸음만 다가오세요. 나머지 아흔아홉 걸음은 저희가 다가서겠습니다.” 일요일, 청년들을 위한 천주교 교회 미사에서 청년연합회 회장이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소개하던 끝에, 관심은 있으나 주저함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던진 메시지였다.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살짝 표시만 해준다면, 그 한 걸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흔아홉 걸음을 다가가겠다는 매우 적극적이고 친절한 배려의 이 메시지는, 듣는 순간에도 기분이 좋더니 계속해서 마음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편견 없이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며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한국여성재단.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보다 근본적인 그릇됨을 바로 잡기 위하여 우리의 사고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는 이들을 위하여 나머지 아흔아홉 걸음을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준비해야 할 아흔아홉 걸음에는 어떤 것들을 답아야 하는 것일까.

**나눔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눔의 사회,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 운동 등 연일 아름답고 따뜻한 말들이 언론과 사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우리 사회는 이제 많은 영역에서 나눔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과거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회구조 속에서는 많은 부분을 규

제하고 통제했어야 했기에, 선한 나눔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기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었다. 이제 나눔은 시혜를 베푸는 선행으로 이해되기보다,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을 향한 용기를 실어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직된 장치들을 유연하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나눔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과 단체, 기업도 내 것을 나눈다는 생각에서 지금 내게 여유롭게 주어진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의 빈 부분에 함께 채운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흔아홉 걸음을 위한 준비**  
지난 몇 달 동안 청년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년연합회 임원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짜고, 자료집을 만들고, 포스터를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청년들은 많은 토론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눈 기쁨도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좌절과 아픔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흘린 그들의 땀과 정성은 겨우 한 걸음 다가서는 이를 위하여 아흔아홉 걸음을 다가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만들어줄 만큼 준비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겨우 한 걸음 다가서는 이들을 위하여 아흔아홉 걸음을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겨우 내딛는 한 걸음도 많은 주저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것에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우리가 다가서야 할 아흔아홉 걸음을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싶다.